

탐욕에 반대하는 '명상 시위' 화제

맥스 잔 등 골드만삭스 현관 앞서 명상 시위 인간 고통·글로벌 위기의 뿌리는 동일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이곳의 본사 현관 앞에서 '명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화제다. 그들은 바로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Buddha on Strike Foundation)'의 회원들이다.

하루 3~4시간 정도 1~3명의 동참자들이 골드만삭스의 현관 맞은편에서 좌복에 앉아 명상을 한 지도 벌써 1개월을 넘긴 '명상 시위'는 SNS에 힘입어 미국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트라이사이클(Tricycle) 지가 보도했다.

"부처님께서 멀리해야 할 감정으로 탐욕을 꼽으셨어요"라고 전제한다.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 맥스 잔(Max Zahn) 대표는 "우리는 이를 경고하고, 자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찾자는 희망을 펴기 위해 이번 '명상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바로 '탐욕'이며, 이는 중독성 포

한 강하기에 이를 견책해 일깨우는데 필요하다. 이는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에서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조직의 본사 현관에서 '명상 시위'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인간의 고통과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 잔 대표는 "그 뿌리는 탐욕에 켜진 시스템이며, 한 쪽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쪽에게 피해를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며 "월가, 골드만삭스 등이 바로 그런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트라이사이클 지는 잔 대표의 말을 인용,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제 자본주의도 소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라이사이클 지는 "이번 명상 시위는 불교의 교리와 자본주의의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 회원들이 골드만삭스 현관 맞은 편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맞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상호 공존의 지혜를 찾기 위해 명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이들의 '잠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로 눈을 돌리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되면

또한 트라이사이클 지는 "골드만삭스 현관의 명상 시위 장면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되면

서 미국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부처님의 가

르침이 금융 산업의 개혁과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matbard / 트위터)", "명상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러한 명상의 장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timzen / 트위터)", "자비심을 배우고 이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Jim Spencer / 트위터)" 등의 반응도 전했다.

"소음이 명상 시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잔 대표는 "그러나 자비의 실천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힘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명상 시위가 우리 모두의 권리를 굳건히 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와이오밍 시에 첫 사찰 개원 될 듯 켄티 카운티 건축위원회, "사찰 신축 승인될 예정"

미국 와이오밍(Wyoming) 시에 첫 사찰이 개원될 전망이다.

지역 언론 '와이오밍 미' 지는 8월 21일 "홍 도안(Hung Doan) 씨와 캄 부(Cam Vu) 씨가 18개월 전 미시간 주 켄티 카운티(Kent County) 건축 위원회에 제출한 사찰 신축 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찰 신축 계획에 따르면, 홍 도안 씨 등은 와이오밍 시의 U.S. 고속도로 131번과 간선도로 54번 교차 지점에 5.6에이커 부지를 매입, 사찰을 신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홍 도안 등은 18개월 전 부지 매입과 함께 와이오밍 시 건축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 측은 "이번 계획은 홍 도안 씨를 비롯해 와이오밍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80여 명의 지역 불자들이 공동 발의해,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예불과 명상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는 것은 물론 와이오밍 사회의 이해와 결속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도안 씨는 "와이오밍 시에는 80여 명 불자들이 있지만, 함께 모일 공간이 없다"며 "사찰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불교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웨스트 미시간 지역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켄트 카운티와 주변 지역에도 다른 불교 사원이 있다. 지난해 와이오밍 시정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 미시간 지역에는 500여 명의 불교도들이 살고 있으며,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계 신앙대화연합(Interfaith Dialogue Association) 프레드 스텔라(Fred Stella) 대표의 말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신의 굴레를 벗고 경사스런 시간으로

대만 자재공덕회, '유령 달' 축제로 승화

아시아에서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유령 달(Ghost Month)'이라고 하고, 이 기간이 위험과 불행에 연관됐다고 믿는 오랜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만의 거대 불교공동체인 '자재공덕회(Buddhist Compassion Relief Tzu Chi Foundation)'가 이 기간을 '경사스런 시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디스트 채널(BUDDHIST CHANNEL)의 8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재공덕회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세계 900여 곳에서 법회를 개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주변과 소통하는 것'으로 '옛 미신'의 굴레를 떨쳐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운을 축제로 탈바꿈시키는 대만 유령 달 축제.

대만에서는 유령 달 기간 동안 수영, 여행, 휘파람, 저녁 산책 등을 하지 않는다. 유령 달에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다고 믿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자재공덕회는 하안가가 끝나는 시점과 '유령 달'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

어 "실제로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자재공덕회는 '유령 달'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4,000여 명을 조직하고, 12개국에서 280,000여 명이 대만 '유령 달'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성과를 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소가죽·향·꿀로 불교 예술품을?

中 현대미술가 장후안 작품 美 전시 '눈길'

어쩌면 흉물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잔디밭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대한 불두(佛頭)와 설법인을 한 부처의 팔은 전시돼 있다가 보던 널브러져 있는 듯 보인다.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시에 있는 프레데릭 메이저 조각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장 후안(Zhang Huan)의 작품이다. 비범한 현대 미술가로 꼽히는 후안의 작품전이 '동양을 보고 서양을 마주하다(Looking East, Facing West)'라는 주제로 5월 24일부터 열리고 있다.

를 아우르지만 대표적 원천은 불교에 있다. 불교의 교리, 불교적 이미지, 부처의 형상 등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모티프가 돼준다.

단단하고 강철같은 불변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스테인리스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향을 태우고 남은 재로 만든 불상을 빚기도 한다. 크기와 모양은 같되 재료만 다른 두 불상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 '베를린 부다(Berlin Buddha)'라는 작품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두 불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쫓았다.

조각가, 화가, 사진가, 행위예술가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진 후안의 작품은 소재와 표현기법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소가죽, 향, 꿀, 생선 내장, 쇠사슬 등 작품 재료 범위는 제멋대로이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 또한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가죽을 통째로 써서 부처님 얼굴을 만드는가 하면 몸에 꿀과 액젓을 바른 채 파리가 꼬이길 기다리며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기도 한다. 형식을 뛰어넘는 탓에 도발적이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 작품 속에 깃든 극단적인 강렬함 때문에 언제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작가기도 하다.

재로 만든 두상에 향을 피워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입이 허물어지고 코가 내러왔고 종래는 두상이 존재했

는지조차 모른다. 많은 선사들이 일렀듯 깨닫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공성의 의미와 상통한다. 그런데 왜 하필 재였을까. 후안은 짙게 갔다. 향을 피우며 각기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다고 했다.

"많은 이들의 소망이 재로 남아 있는 곳이었습다. 허무하다고 보단 수많은 이들의 축원과 희망이 온전하게 남겨진 느낌이었죠."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고 작품에 이를 반영하려 한다는 장 후안. 분명 거리낌없이 다가가는 어려우나 곱씹어볼 가치는 있다.

메이저 조각 공원의 큐레이터 조셉 베체어(Joseph Becherer)는 "후안은 현대 예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며 "중국과 미국에서 그의 작품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세계 예술계에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현대의 익명성과 중국 사회의 폐쇄성 등 그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

기존 불교 예술과는 다른 도발적·실험적 작품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중국 예술가 장 후안(Zhang Huan)의 작업은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명제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극단적이고도 강렬한 그의 작품은 분명 논란이 되긴 하지만 작품 속에 자리한 사유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평(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평)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작지만 강한중단!! 禪大韓佛敎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중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중단에서 중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중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 출 서 류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입명장,사찰등록증,지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종무법인) 禪대한불교 조계종
중단 가입문의 : (02) 959-1825
중단사업부 : 070-7391-7767

본 중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중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중도가 잘 되어야 중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한해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 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